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사사기 14:5-9

- 5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딘나에 내려가 딘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 6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 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 떄와 꿀이 있는지라
- 9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와 꿀

삼손이 딘나에서 본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삼손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완악함을 틈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귀하게 얻은 아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아마도 상견례를 위해서 딘나로 내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 혼자 딘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가 삼손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삼손이 맨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일을 자기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딘나로 내려가던 길에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사자의 주검에 집을 지어서 꿀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집에 계신 부모님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꿀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삼손은 효성이 지극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 걱정할까봐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사자의 주검에서 거둔 꿀을 부모님에게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부모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위반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 중 첫째는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껍질 등 포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검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고 셋째로 머리칼을 깎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원에 가까이 가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임으로, 나실인 규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기려고 했거나 어긴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실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삼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죽

인 것이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에게 나실인 규례를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사자를 죽였다고해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성경에 기록된대로 일주일 동안 격리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일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도 원치 않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것은 더더욱 싫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의도적으로 나실인 규례를 어겼다는 사실은 그 다음 행동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삼손이 사자 주검에서 발견한 꿀을 자기도 먹고 굳이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도 먹게 한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자신을 나실인으로 바친 부모에 대한 도전이며 조롱입니다. “주검에서 거둔 꿀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드린 꿀을 드시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왜 힘들게 뭔가에 얹매여 사십니까? 나는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동시에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은 잠깐 단맛을 느끼게 하는 꿀보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나실인 규례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고 속박하려는 명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실인 규례에 대한 삼손의 태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쉽고 가까운 법

신명기 30:11-16을 읽겠습니다.

❖ 신명기 30:11-16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 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 16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지켰을 때 임할 복과 어겼을 때 임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은 사람이 실천하기에 불가능할만큼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깝고 쉽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겠어요? 사람이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녀가 교제할 때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합니다.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상대가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이지요. 제3자가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유치하고 쓸데 없어 보이는 약속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할 일도 많은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마음이 중요하지 꼭 표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애정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수험생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이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이유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소망이 놀고 싶은 마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놀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소망을 이기면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킬 약속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복으로 여겨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보다 블레셋 여인을 더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보다 세상에서 보장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더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귀찮게 여겨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속박하는 족쇄로 여겨 틈만 나면 율법의 어김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하나씩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율법을 어긴 대가를 혹독하게 치려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순종

느헤미야 6:10-14입니다.

❖ 느헤미야 6:10-14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

이니 성전 외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마야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스마야를 매수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말한대로 성전으로 피신했다면 거기에서 죽었거나, 제사장이 아니면서 성전에 들어간 일로 유다 백성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실패로 돌아갔겠지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율법을 준수했을 때에 허락될 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성전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목숨도 지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례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도 정죄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율법을 준수하다가 큰 손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행하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들은 아무런 현실적인 유익이 없이 실생활에 불편만 초래하는 형식적인 규제들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불편과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켰을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율법 자체가 복입니다. 율법에는 성도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만 잘 지켰더라도 이스라엘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눈에는 한 없이 쓸데 없어 보이는 음식법과 정결법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위생적이고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육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교복과 율법

저는 한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6년 동안이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복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설움을 달래고자, 조만간 정왕고등학교 교복을 한 벌 맞춰 입고 학교에 들어가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복을 입었다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저를 전학생으로 여기지는 않겠지요. 교복이 학생이 아닌 사람을 학생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복이 부활한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복을 다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복이 학생 아닌 사람을 학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더욱 학생답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복에는 자신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의식하게해서 학생다운 행실이 드러나게 하며, 같은 교복을 입은 친구들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등의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복을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울 수 없는 표시를 몸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자신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루 동안 사람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쉼을 누리면서, 안식일 이후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각박한 세상을 살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에서의 불완전한 안식이 아닌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복잡한 제사와 절기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 제사라도 완전히 사할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해줄 중보자를 사모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절제, 세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이지, 율법이 악하거나 무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훈련과 헌신과 절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성수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에 생업에 종사한다고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한 번 드렸다고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는 되도록이면 생업과 관련된 일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이 이뤄져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며 지체와 교제하고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것도 주일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는 믿음 또한, 주일 성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법에 대해서는 안식교에서 워낙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레위기에 금지된 음식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절제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활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과식, 과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유흥이나 취미 활동이 포함됩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였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뚜렷하게 새겨진 교복을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시대를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세례식 때 한 서약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여겨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불편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를 더욱 신자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생명의 길

시편 16편을 읽겠습니다.

❖ 시편 16:1-11

-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 5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 7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음과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측량하여 주신 심히 아름다운 구역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 머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훈계와 교훈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서 부모의 눈을 피한 것과 같이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이신 길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생명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앙 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앙 생활에 제약이 클수록, 말씀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온라인 예배를 씻고 나서 드릴지 드리고 나서 씻을지, 예배를 매주 드릴지 한 달치를 몰아서 드릴지를 결정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자신으로써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종교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혹독하게 여겨지신다고해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구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보이신 생명의 길로 행하심으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율법을 오해한 경험이 있나요?

아무것도. 귀찮기로 생각은 했는데 왜 안 인복이.

2.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써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힘겹게 여겼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주님에게. 십자가.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봅시다.

산하고 들이구에 무안모임.

행복한 기억이 있어. 감사의주.

4.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좀처럼 순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